INGO
The LAMP

소식지 제40호
2026.09 · FIELD & IMPACT REPORT



NEPAL · SRI LANKA · MALAWI

네팔에서 전해진 긴급한 소식

이번 호에는 네팔·스리랑카·말라위, 그리고 함께 걷는 두 기관의 소식을 담았습니다.

이번 호 목차 IN THIS ISSUE

1 **네팔 식량 긴급지원** NEW
한 가정 한 달 식량 5만 원 · 모금 10월 말까지

2 **스리랑카 방과후 교실**
두 학기 동안 한 아이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

3 **함께 걷는 두 기관**
합천 오두막공동체 · 의성 보나영농조합법인

4 **말라위 여성 가장 자립** NEW
어머니가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도록

5 **후원 안내와 후원자 이야기**
10년째 함께해 주신 신란숙 작가

1. 네팔 / 식량 긴급지원

NEW

라수와의 겨울, 가장 급한 것은 식량입니다

지난 8월 26일 아침,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빙하와 암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
쏟아진 물은 마을과 다리와 길을 함께 쓸어 갔습니다.
겨울을 앞둔 지금, 그 마을에 가장 급한 것은 식량입니다.

84,270명
피해 주민
6개 군 · 19,284가구

7,570채
주택 피해
학교 18곳 · 다리 33개

2만 가구
식량 지원 필요
유엔 식량안보클러스터

출처 : 네팔 재난위험경감청(NDRRMA)·유엔 인도지원조정실(OCHA)·네팔 정부 RDNA (2026.9)

겨울 대피 자재
겨울 전까지

식량
더램프가 보냅니다

식수 · 위생용품
수인성 질병 차단

5만 원 = 한 가정 한 달 식량

모금액으로 식량을 구매해, 현지 선교사님을 통해 피해 가정에 직접 전달합니다.
길과 다리가 끊긴 마을부터 찾아갑니다.
모금 기간 10월 말까지 · 입금자명 “이름+네팔” ·
국민은행 358801-04-143445 (사단법인 더램프)



▲ 급류가 지나간 뒤의 라수와 일대



▲ 현장에서 이어지는 구호 물품 전달

2. 스리랑카 / 방과후 영어교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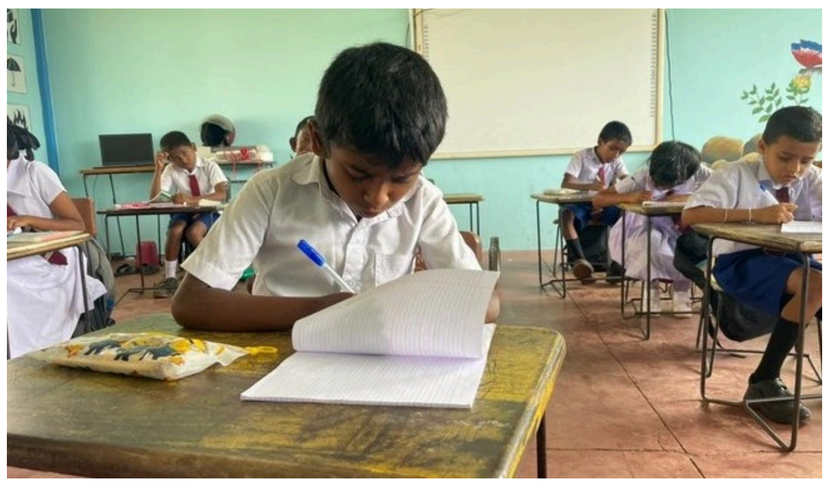
두 학기 동안, 한 아이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

뮬라이티브 3개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.
연료난으로 학교 수업일이 줄어든 만큼,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이 교실에 달려 있습니다.
처음 등록한 아이들이 지금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.

0%
중도 탈락



▲ 이야기책을 함께 읽는 시간



▲ 공책에 옮겨 적는 시간

현장의 목소리

"공부하고 싶어도 책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.
더램프에서 영어책을 나누어 주고 함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."

콜라무리푸 학교 교장

3. 협력기관 / 오두막공동체 · 보나영농조합법인

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을 함께 걷습니다

더램프는 지난 10년간 국제개발협력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 왔습니다.
올해 코이카 사업은 합천과 의성의 두 기관과 함께 준비했습니다.

합천 오두막공동체

대표 이재영 · 경남 합천

자활이 필요한 사람들의 공동체.
이재영 대표는 이곳에서 40여 년을 헌신했습니다.

현장 영농 **현지 관리자 파견**

스리랑카 고추 농가 사업

의성 보나영농조합법인

보나콤 강동진 대표 · 경북 의성

자연양계로 아프리카 농민들을
도와 온 사회적 농업 법인입니다.

자연양계 기술 **현지 훈련**

말라위 여성 가장 자립사업

4. 말라위 / 여성 가장 자립

NEW

어머니가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도록

릴롱궤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의 카부둘라 마을에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많습니다. 남의 밭에서 하루 일하면 그날 먹을 만큼은 벌지만, 그동안 아이는 집에 혼자 남습니다.

현지조사 | 사업 설계 | 코이카 제출 | 심사 완료 | 결과 대기

남의 밭에서 일하면

지금

- ✓ 그날 먹을 만큼만 법니다
- — 아이는 집에 혼자 남습니다
- — 학비·병원비는 늘 모자랍니다

집 마당에서 닭을 기르면

사업이 시작되면

- ✓ 아이를 돌보며 일합니다
- ✓ 아이 곁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
- ✓ 학비·병원비를 모아 둘 수 있습니다

여성 가장의 일

말라위에서 닭을 기르는 일은 여성의 일입니다. 여성들은 조합을 만들어 함께 기르고 함께 팝니다. 릴롱궤 농업대학 축산팀과 말라위 농업부가 함께 협력합니다.



▲ 카부둘라 — 장을 보러 가는 길



▲ 릴롱궤 농업대학 축산팀과의 협의

코이카 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, 말라위 협력은 계속됩니다.

함께할 후원자를 찾습니다

더램프는 소외받고 고통받는 세계의 이웃을 위해 빛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.
개인은 월 1만 원부터, 단체는 월 3만 원부터 함께해 주세요.

후원자 이야기 · SUPPORTER STORY



▲ 신란숙 작가 옻칠 작품

10년 가까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함께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.
옻칠로 달항아리를 그리는 **신란숙** 작가님입니다.
홈페이지에서 후원 안내를 보시고 직접 신청하신 뒤로,
매달 조용히 함께해 주셨습니다.
신란숙 작가님은 옻을 수십 번 칠하고 말려 은은한 빛을 내는 달항아리 작업을 이어 왔습니다.
2024년 인사아트프라자와 2025년 하랑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고,
2026년 7월에는 옻칠 작가 6인 그룹전에 참여했습니다.

> “나는 오랜 시간 달항아리의 곡선 속에서 우주를 보았다.”
>
> 브레이크뉴스 인터뷰 · 2025.10.29

더램프를 통해 작품을 구입하시면 일정금액이 기부됩니다.

더램프 후원 안내

1. 정기 후원 개인 월 1만 원 · 단체 월 3만 원부터
2. 사업 후원 네팔 식량 · 말라위 여성 가장 · 도서관 · 생명농업 · 식수시설
3. 기부금영수증 발행해 드립니다.

후원계좌 국민은행 358801-04-143445 (사단법인 더램프)
후원링크 ihappynanum.com/Nanum/B/S7YKR6DJD2

QR 후원링크

함께하는 분들

대표 이영철 · 고문 이시영 · 기술고문 고병수 · 이사 구자범 김달호 박준범 성낙송 안태주 양성부 유명호 이형우 임기도 조영훈 최도식

함께하는 단체

GCF · JBN보험중개 · 고능교회 · 뉴라이프교회 · 다일교회 · 동행하는교회 · 삼송동안교회 · 서교동교회 · 서부교회 · 소마교회 · 수진교회 · 신철원중앙교회 · 안동교회 · 엘림열방선교회 · 엠에스전기㈜ · 유니락㈜ · 의정부뉴시티교회 · 주은혜교회 · 주작나무한의원 · 진리와은혜교회 · 코코호도 · 한일교회 · 오두막공동체 · 보나영농조합법인